

“전통사찰 수행 환경을 보호해주세요”

옥천 대성사엔 환경부 연구소가, 서울 대성사엔 예술의전당 공연연습장이...

환경을 보호해야 할 환경부와 전통문화와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문화관광체육부가 오히려 전통사찰 인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옥천 대성사전통사찰 58호, 주지 혜철는 최근 인근에 추진중인 환경부 연구소 건립문제에 발각 뒤집혔다. 대웅전 35m 부근에 환경부 산하 금강물환경연구소(소장 천세억) 2층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5월 6일 “대웅전 뒤편에서 공익이 계속해서 들러 범법조차 열 수 없다”며 “항의차 방문한 옥천군청 건축과는 전통사찰이지만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아니므로 건축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더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문광부에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은 문의하니 전통사찰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민공청회 등으로 지역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들었다. 전통사찰에서 500미터 이내의 땅 주인들이 ‘참 좋은 법’이라고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에 동의할 해주는가”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 불교총연합회(회장 노현, 법주사 주지), 옥천불교사모연합회(회장 혜철)는 5월 11



옥천 대성사 인근 금강물환경연구소 공사현장.

일 청주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공사 즉각 중단 △훼손 산림 복구 △옥천군수 공식사과 등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시 총궐기하겠다는 강력대응 의사를 밝혔다.

전통사찰의 500m 내 건축계획을 사전심의토록 한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지자체장이 지역주민의 반대를 고려, 지정을 꺼리기 때문에 900여 전통사찰 중 지정된 곳이 전무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법제도를 역이용한 개발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문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해 12월부터 천년고찰인 서울 대성사(전통사찰 22-1호, 주지 법안)에

서 불과 150m 떨어진 지점에 6344㎡에 달하는 예술의전당 공연연습장 건립을 추진해 불교계 원성을 사고 있다.

대성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실보다 더 놀라운 점은 서울시청이 2007년 9월 13일 대성사가 보유한 목불좌상(서울시유형문화재 제92호)을 이동 가능한 동산문화재로 평가, 기존 보호구역이던 필지를 해제한 것. 문화재보호법(문화재 반경 500m내 건설공사 규제)을 피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통사찰이지만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대성



서울 대성사 인근 예술의전당 공연연습장 건립에 반대하는 서초사암련 스님과 신도들이 15일 문광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사는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 서울 대성사 측은 “당시 많은 사찰 중 문화재 재평가에 대성사가 유일했다. 대성사 인근을 개발하기 위한 ‘기존에도 야외공연장으로 인해 교통난과 범죄사 소음 등 수행환경이 침해당했다. 밤늦게까지 울리는 공연 소음은 9시 취침해 3시부터 기상하는 승가 생활에 치명적이다’며 “우면산 터널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불가능해 공연연습장이 건설되면 사찰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성사와 서초사암련합회와

신도들,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100여명은 3월 27일 서초구청에서, 5월 15일 문광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공사현장에서도 법회를 열고 있지만 공사는 여전히 강행중이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이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사찰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는 거의 없다. 도심사찰 활성화와 지역환경 개발로 사찰 수행환경과 지역재산권 분쟁은 날로 증가하는 반면, 불교계는 개별 사찰에서 대응하는 실정이다. 사찰 수행환경과 불교계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중단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

사람·생명·평화의 길 찾으니...

오체투지순례단, 21일 명동성당~조계사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찾아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등이 진행하는 오체투지 순례가 서울에서 펼쳐진다.

오체투지순례단은 5월 16일 오전 11시 남태령 서울 경계에 도착, 판문 체육공원에서 기념행사를 연대 이어 21일 명동성당에서 조계사까지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오체투지 순례’를 보행한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 명동성당을 출발해 서울시청광장과 청계광장을

거쳐 조계사까지 진행되며, 오후 5시 조계사에서 ‘생명평화를 위한 시국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

시국법회에서는 오체투지순례단 소개 및 지난 과정에 대한 소감과 입진각까지의 각오, 빈부격차 등 사회현안에 대한 참회와 성찰의 장이 마련된다. 또 전 조계종 교육위원장 청화 스님의 시국법어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총무 김인국 신부의 생명평화를 위한 시국선언문도 낭독된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 우리가 지켜요”

경남파라미타 문화재지킴이 발대식

경남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 문화재를 가꾸며 보호하는 ‘경남파라미타청소년 문화재 지킴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회장 원정)는 5월 16일 창원중앙중학교 체육관에서 문화재지킴이단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파라미타 청소년문화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창원, 마산, 진해, 합천 지역 청소년 500여 명으로 구성된 지킴이단은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주변 정화활동, 모니터링, 홍보, 도색·잡초제거 등 시설물관리, 화재 감시 등에 적극 참여한다.

발대식은 식전행사에서 학생들이 직접 단체사진 촬영, 기념품 만들기, 인경, 인트로 댄스, 풍물 등의 공연을 선보였다. 이어 경상남도교육감의 축하메시지 낭독으로 시작된 본 행사에서는 표창장 수여, 위촉장 수여, 총회장 인사, 내빈 격려사,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원정 스님은 격려사에서 “전통문화를 바르게 인식하면서 선조들의 소중한 얼을 이어 창의적으로 전승하라”고 당부했다.

김두문 회장(김해 삼계중 교장)은 “청소년들의 문화에 현대의 전통을 잇는 바람직한 청소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 강조했다.

발대식에 이어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에서 간부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찰음식문화체험 연수도 1박 2일간 진행됐다.

이성연 기자

‘골인~!’ 축구로 영그는 ‘종교 화합’

4대 종단 성직자 축구 대회 열려... 가톨릭팀 우승

초여름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국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축구를 통해 종교화합을 다졌다.

불교·가톨릭·개신교·원불교 등 4대 종단은 5월 11일 과천 관문체육공원에서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4대 종단 성직자 축구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각 종교간 상호 친목을 위해 2005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4개 팀 선수단 중 불교팀은 조계사 등 스님들로, 개신교는 순변에 따라 성공회 신부님들이 참가했다. 가톨릭은 서울대학교 신부님들이, 원불교는 중앙총부 교무님들로 각각 구성됐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서영 스



원불교팀과 축구 경기 중인 불교팀의 스님.

님은 경기에 앞서 “이번 축구대회로 지역과 종교간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와 평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해인사 승가대학, 한신대학교 등 각 종단 대학에서 대회가 열리면 종교간 상호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난 대회 우승팀인 불교팀은 준우승 팀인 원불교팀을 만나 선전했으나, 2대 0으로 석패했다. 뜨거운 열기에도 경기 중 거친 몸싸움과 태클 등은 드물었으며 상호존중과 이해 속에 진행됐다. 참가 선수단은 대회 중 점심시간에는 채식 도시락부터 피자까지 각 종교 교리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러진 경기에서 가톨릭팀이 원불교팀을 2대 1로 꺾고 우승했으며, 3·4위전에서 불교팀이 개신교팀을 2대 1로 누르고 3위를 차지했다. 이날 받은 상금은 노숙자 무료급식 등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매장문화재 조사 전담 창구 생겨

문화재청 대전에 고객지원센터 개관

매장문화재 조사업무와 관련 민원을 전담하는 창구가 마련돼 효율적인 매장문화재 발굴·보존이 가능하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관무)은 5월 12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앙문화재센터 3층에서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는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소규모 발굴비용 국가지원 제도, 법령 및 용어해설, 제출서류양식 제공 등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각

종업무를 지원한다.

또 매장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쟁사안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센터 개관으로 매장문화재가 개발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인식개선은 물론, 그간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정보 불균형에서 비롯된 각종 오해와 불만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중앙·지방 종무원 체육대회 열려

조계종 5월 29일 대전서 개최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은 5월 29일 오전 10시 대전 남산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 종무원간 일민적 종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중앙과 본·말사 재가 종무원 200여 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대회는 재가종무원들을 위로 및 격려하고 중앙과 본말사 종무원

상호간의 교류와 화합을 통해 종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총무원 총무부 관계자는 “이번 체육대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조동섭 기자

千年達磨圖 誕生

梵舟스님의 칠(漆) 선화(禪畫) 전(展)
선차(禪茶) 다기(茶器) 전(展)

선묵대가의 맑고 높은 기운의 선화와 천연의 옷칠이 만난
칠선화 천년 달마도 최초 공개발표 전시회





일 시 : 2009. 5. 20 (수) ~ 5. 26 (화) 한국미술관 (Tel. 02-720-1161)
초대일시 : 2009. 5. 20 (수) 오후 3시 (오픈 퍼포먼스)

격조 높은 분청 다기와 선화가 만난 선차인의 소장 가치가 높은 선차 다기전

경북 상주시 화남면 동관 2리 294번지 달마 선원 Tel. 054-535-0378
www.dharma-

